



2013년 2월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 라틴아메리카는 어디로 가는가?

김달관

에콰도르는 내년 초인 2013년 2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에콰도르의 내년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현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의 국가개혁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기로에 설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즉 코레아 대통령의 진보적인 국가개혁의 핵심인 수막 카우사이가 지속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수막 카우사이는 2008년 신헌법의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서 2008년 신헌법을 관통하고 있으며, 수막 카우사이는 "다양성 및 자연과 조화에 기초한 공생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공생을 추구한다. 따라서 2008년 신헌법은 에콰도르가 진보적인 국가개혁을 추진하는 최상위이자 최고의 준칙이다.

2013년 선거의 의미는?

에콰도르는 1978년 신헌법을 통해 1979년부터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모든 정의와 권리로부터 배제되었던 원주민이 에콰도르 역사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던 해이다. 한편, 경제적으로 에콰도르는

1981년 외채위기를 겪게 되면서 1982년에 신자유주의를 주요한 정책으로 수용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1992년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강화되면서 에콰도르에서도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었다. 다른 한편, 에콰도르 역사에서 항상 배제되고 은폐되어 구조적 폭력의 대상이었던 에콰도르에서 가장 빈곤한 원주민이 신자유주의 득세로 인해 고통이 극에 달했고 이에 1990년에 강력한 원주민 봉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1998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으나 원주민의 희망과 바람이 헌법에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전통적인 엘리트 간의 협약으로서 신자유주의가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했다. 그러나 1999년 에콰도르 전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이것은 1998년 신헌법이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었다. 즉 1998년 신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엘리트 간의 협약이라는 측면이 강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에콰도르 사회는 1997~2005년 8년 동안 3명의 대통령이 국민의 탄핵으로 하야했다. 즉 1997년 국민의 지지로 당선된 압달라 부카람 대통령은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부패를 일삼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한 것이다. 2000년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하밀 마우아드 대통령도 정치적 부도덕성과 부패로 인해 국민에 의해 강제로 해임되었다. 2005년 국민의 지지로 당선된 구티에레스 대통령도 권력남용과 부패로 인해 임기 중에 탄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시 말하면, 1990년대 원주민 봉기로 인해 시민사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정치적인 불안정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라파엘 코레아가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고 2006~2007년 제헌의회에서 국민의 여망을 상당히 반영한 2008년 신헌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따라서 에콰도르 사회는 2008년 신헌법 이전과 2008년 신헌법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2008년 신헌법은 원주민의 세계관의 핵심인 수막 카우사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수막 카우사이는 공생을 핵심개념으로 해서 다국민국가, 상호문화성,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복합문화성, 파차마마, 자연권 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2005년 구티에레스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2006년부터 이러한 사회적 경향을 현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가 주도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3년 2월 대선에서 코레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진보적인 국가개혁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만, 다른 후보자가 대선에 성공한다면 에콰도르 사회가 어떻게 변모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2013년 2월 17일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 실시

2013년 2월, 에콰도르에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대통령 선거 과정은 2단계로 되어 있다. 첫 단계는 2013년 2월 17일에 선거가 실시되고, 선거결과에서 어떠한 대선 후보자도 40%이상을 득표하지 못하거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 사이의 격차가 10% 미만일 때는 두 번째 단계로서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결선 투표는 2013년 4월 7일이고, 결과 발표는 5

월 13일 이전이다. 새로운 대통령 임기는 5월 24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도 2월 17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실시되고 13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현재 에콰도르 인구 1400만 명 중에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1140만 명이며, 해외에 23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 2013년 2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등록은 10월 19일에서 11월 15일까지 계속된다. 정치 단체나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선거인 명부의 1.5%인 15만 명의 지지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64개의 지방 정당과 정치 단체와, 전국적인 범위의 11개의 정당과 정치 단체가 대통령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 중에서 11개의 정당과 정치 단체만 등록이 인정되었다.

선거 캠페인은 2013년 1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42일간 계속된다.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선거 캠페인 기간에는 어떠한 대중매체도 대선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도 표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지 다른 대선 후보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대선 후보자에 대한 정보만을 대중매체를 통해 알릴 수 있을 뿐이다.

2012년 9월 현재 여러 대통령 후보자 중에서 현 대통령이자 2013년 대선 후보자인 라파엘 코레아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적인 에콰도르 여론도 이변이 없는 한 현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된 유력한 후보자는 5명 정도이다. 그중에서 변호사이자 기업인이며 에콰도르에서 가장 부자인 것으로 알려진 알바로 노보아가 있다. 알바로 노보아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 무려 4번이나 출마한 경력이 있다. 이번까지 합하면 5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다. 최근에 여론 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기예르모 라소가 있다. 기예르모 라소는 과야킬의 금융인 출신으로서 행정부와 의회에서 정치경험이 있다. 전 대통령이었던 루시오 구티에레스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루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는 알베르토 아코스타(Alberto Acosta) 후보

시오 구티에레스는 부패와 권력남용으로 인해 2005년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에 의해 탄핵되어 강제로 대통령에서 해임된 경험이 있다. 전 행정부 장관, 의회 의장, 대학 교수 출신으로 진보적인 세력에 지지를 받고 있는 알베르토 아코스타가 있다. 알베르토 아코스타는 2008년 신헌법의 핵심 개념인 수막 카우사이와 관련이 있다. 수막 카우사이는 “다양성 및 자연과 조화에 기초한 공생의 새로운 방식”으로 공생을 중시한다. 알베르토 아코스타는 현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과 함께 야수니 국립공원에 있는 석유자원을 발전보다는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정책을 지지했다. 특이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는 파브리시오 코레아가 있는데, 그는 현 대통령과 친형제이다. 파브리시오는 엔지니어이자 기업인이다.

표) 2013년 대선 출마자 여론조사(조사기간: 2011년 10월~2012년 10월까지)

여론조사 날짜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결과
2011년 10월 22일	CEDATOS	①라파엘 코레아40% ②하이메 네보트17.5% ③루시오 구티에레스5% ④알바로 노보아3.1%
2011년 11월 12~13일	Perfiles de Opinión	①라파엘 코레아48.9% ②하이메 네보트15.7% ③알베르토 아코스타6.9%
2012년 3월 14~16일	CMS	①라파엘 코레아48.56% ②루시오 구티에레스8.09% ③알바로 노보아6.98% ④기예르모 나소4.60%
2012년 4월 14일	SP Investigaciones	①라파엘 코레아39% ②알바로 노보아3% ③루시오 구티에레스3%
2012년 4월 29일	Perfiles de Opinión	①라파엘 코레아50% ②하이메 네보트10% ③루시오 구티에레스4% ④알베르토 아코스타4%
2012년 5월 30~31일	Perfiles de Opinión	①라파엘 코레아52% ②하이메 네보트9% ③기예르모 라소6% ④알바로 노보아4%
2012년 7월 14~15일	Informe Confidencial	①라파엘 코레아50% ②기예르모 라소17% ③루시오 구티에레스8% ④알바로 노보아4%
2012년 8월 4일	Opinión Pública	①라파엘 코레아43% ②기예르모 라소7% ③루시오 구티에레스5% ④알바로 노보아4%
2012년 8월 4~5일	Perfiles de Opinión	①라파엘 코레아53.4% ②기예르모 라소14.4% ③알바로 노보아6.7% ④알베르토 아코스타4.9%
2012년 8월 14~16일	CMS	①라파엘 코레아41.75% ②기예르모 라소15.82% ③루시오 구티에레스8.22% ④알베르토 아코스타6.55%
2012년 8월 18일	Opinión Pública	①라파엘 코레아44% ②기예르모 라소8%

		③루시오 구티에레스4% ④알바로 노보아3%
2012년 9월 8일	Opinión Pública	①라파엘 코레아44% ②기예르모 라소9% ③루시오 구티에레스5% ④알바로 노보아2%
2012년 9월 15~16일	Informe Confidencial	①라파엘 코레아48% ②기예르모 라소18% ③루시오 구티에레스8% ④알베르토 아코스타5%
2012년 9월 11일과 26일	Perfiles de Opinión	①라파엘 코레아55% ②기예르모 라소11% ③루시오 구티에레스6% ④알베르토 아코스타3%
2012년 9월 29~30일	Perfiles de Opinión	①라파엘 코레아61% ②기예르모 라소12% ③루시오 구티에레스3% ④알베르토 아코스타2%
2012년 10월 7일	CEDATOS	①라파엘 코레아44% ②기예르모 라소18% ③루시오 구티에레스6.9% ④알베르토 아코스타6.5%
2012년 10월 22일	Market	①라파엘 코레아39% ②기예르모 라소24% ③루시오 구티에레스12% ④알베르토 아코스타4%
2012년 10월 28~30일	Market	①라파엘 코레아40% ②기예르모 라소23% ③루시오 구티에레스15% ④알베르토 아코스타6%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여론 동향을 보면, 부동의 1위인 라파엘 코레아다. 라파엘 코레아는 39%~61% 사이에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위는 3%~24% 사이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위와 2위의 격차가 여론조사 초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격차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적, 사회경제적 특징을 보기 위해 실제 사례를 보자면, 2012년 10월 7일 CEDATOS는 15개 도시에서 16세 이상의 에콰도르 시민 2320명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이다. 지역적 특징을 보면, 진보적 성향을 대변하는 라파엘 코레아는 키토(47%),

내륙지역(45%), 과야킬(42%), 해안지역(43%), 아마존지역(44%)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보수적 성향을 대변하는 기예르모 라소는 지역적으로 과야킬(20%), 해안지역(19%), 키토(17%), 내륙지역(16%), 아마존지역(13%)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라파엘 코레아의 지지층은 하층(47%), 중산층(42%), 중상층 및 상층(38%) 등으로 나타난다. 기예르모 라소의 지지층은 상층 및 중상층(24%), 중산층(20%), 하층(16%) 등으로 나타난다. 여론지지 동향과 현지의 여러 인사들에게 문의해 보면, 현 대통령인 코레아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아야 할 것이다.

2013년 에콰도르 대선과 라틴아메리카의 미래

2001년 9.11 사태,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재정위기는 신자유주의 위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서구 근대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1990년대 20:80 사회에서 최근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서 1:99 사회로 이동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자본주의가 내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칼 폴라니(Karl Polanyi) 식으로 이해하자면, 신자유주의에 의해 시장자유주의가 확대되는 과정과, 다른 한편으로 노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의 총체인 사회의 자기보호 과정으로서 ‘이중적 운동’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강력한 파열음으로 인해 거대한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프롤레타리아 투쟁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인류의 투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에서 폭넓은 변혁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전반적으로 폭넓은 변혁을 시도하기 위한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산토스는 국가개혁의 어려

움을 2개로 보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 종결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자본주의 종결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개인주의(vs. 공동체), 경쟁(vs. 상호성), 이익(vs. 보완, 유대) 원칙이 지배적인 자본주의 축적방식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으로, 실질사회주의 붕괴라는 관점에서부터 ‘자본주의 이후’(Post-capitalism)의 대안을 고려하거나, 자본주의가 신대륙에 이식되기 이전인 원주민 사회에서 작동했던 경제에서 대안을 상상하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현대 자본주의로부터 ‘자본주의 이전’(Pre-capitalism)을 고려한다면, 원주민운동은 정복·식민 이전 시대에 원주민 사회에 존재했던 것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모델을 찾으려 한다. 둘째, 식민성의 종결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식민성의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이다. 이 전통에서 독립은 식민성의 종식을 의미했고 그래서 ‘반자본주의’가 정치적 목표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인종적·종족적 투쟁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내적 식민성이 독립이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식민성이 보다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반자본주의’와 ‘탈식민성’이 정치적 목표이다. 이에 계급지배와 인종적·종족적 지배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원주민 세계관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급진적 민주주의에서 찾고 있다. 브라질을 대표로 하는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기존 자본주의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포스트-신

자유주의 운동에서 에콰도르 사례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막 카우사이이다.

2013년 대선에서 코레아가 재선에서 성공한다면 진보적 국가개혁으로서 수막 카우사이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코레아가 재선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에콰도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많은 어려움에도 포스트-신자유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수막 카우사이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콰도르 대선의 결과는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는 에콰도르의 2013년 대선을 주시하여 지켜볼 것이다.

참고문헌

- 마이클 샌들(2010),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옮김, 김영사.
- 최현(2009), 『인권』, 책세상.
- 칼 폴라니(2009), 『거대한 전환』, 홍기빈 옮김, 길.
- Acosta, Alberto(2009), *El Buen Vivir. Una Vía para el Desarrollo*, Ediciones ABYA-YALA, Quito.
- Acosta, Alberto(2010), *El Buen Vivir en el Camino del Post-Desarrollo. Una Lectura desde la Constitución de Montecristi*, Policy Paper 9. Fundación Friedrich, FES-ILDIS, Quito.
- Acosta, Alberto y Esperanza Martínez(2011), *La Naturaleza con Derechos: De la Filosofía a la Política*, Ediciones ABYA-YALA, Quito.
- Avila Santamaría, Ramiro(2011), *El Neoconstitucionalismo Transformador: El Estado y el Derecho en la Constitución de 2008*, Ediciones ABYA-YALA, Quito.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l Ecuador(2008).
- Cortez, David(2009), "Genealogía del 'Buen Vivir' en la Nueva Constitución Ecuatoriana", Ponencia Presentada en el VIII International Congress for Intracultural Philosophy. Good Life as Humanized Life. Concepts of Good Life in Different Cultures and Their Meanings

- for Politics and Societies Today, Seoul, Ewha Wamans University, 2009년 7월 3일, pp. 1-17.
- Gudynas, Eduardo y Alberto Acosta(2011c), "La Renovación de la Crítica al Desarrollo y el Buen Vivir como Aternativa", *Revista Internacional de Filosofía Iberoamericana y Teoría Social*, No. 53, Venezuela, pp. 71-83.
- Harnecker, Marta(2010), "El Nuevo Modelo Económico del Socialismo del Siglo XXI. Algunos Elementos para la Discusión", en SENPLADES, *Los Nuevos Retos de América Latina: Socialismo y Sumak Kawsay*, Quito, pp. 77-89.
- Huanacuni, Fernando(2010), "Paradigma Occidental y Paradigma Indígena Originario",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No. 452, Quito, pp. 19-24.
- Larrera, Ana María(2010a), "La Disputa de Sentidos por el Buen Vivir como Proceso Contrahegemónico", en SENPLADES, *Los Nuevos Retos de América Latina: Socialismo y Sumak Kawsay*, Quito, pp. 15-28.
- Larrera, Ana María(2010b), "Primera Mesa: El Constitucionalismo Postneoliberal y el Sumak Kawsay", en SENPLADES, *Foro Internacional: Los Retos Nuevos de América Latina. Socialismo y Sumak Kawsay, Memorias*, Quito, 18-19 de enero de 2010.

김달관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